

'선의 정신의학' '...전생여행' '나는 환생을...' 등

심리요법책 잇달아 출간

전생여행(브라이언 와이스의 전생요법)이나 환생을 믿지 않았다 등이 그것.

김종해 국립정신병원 정신과장의 <선의 정신의학>(한강서)은 마음의 안정과 자기발견, 또는 자기실현을 위해 형성된 선의 효용을 정신의학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신라 불상 사진의 시각적 암시효과로 환자의 자각을

참선효용 정신의학적 측면 분석
임상경험 통한 전생치료법 소개
'마음 다스리기' 건강법 구체 제시

유도하는 영상요법(影像療法)을 창안했다. 동서고금의 건강 및 치병의 명언과 격언, 기타 일화들을 통해 심의학을 소개하고 있는 <건강을 얻는 마음의 지혜>(정신문화사)는 '읽으면서 치유한다'는 부제를 달고 있다. 심의학연구자인 저자 이어명씨는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병이 치료되는 것도 알게 되며 마음이 작용한 때"이라며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근본적이고 점체적인 건강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니냐' 등의 의혹도 사고 있지만 김영우 원장은 "이유없는 질병과 정서 장애는 많은 경우 전생에 그 원인이 있고, 그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며 자신의 임상치료 결과를 확신하고 있다. 독일학 전주교 신자이기도 한 그는 "종교를 떠나 경험적인 임상데이터를 근거로 전생요법을 국내에 소개하게 됐다"고 말한다. 전생요법은 60년대부터 몇몇 심리치료사에 의해 주장돼 오다 88년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와이스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는 책을 펴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생연구치료학회와 미국임상회합회에서 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와 <전생요법>은 지난해 말 정신세계사에서 번역 출간됐다.

국내에 처음으로 전생(퇴행)요법을 도입, 1백명의 환자를 치료한 임상경험을 책으로 엮은 김영우 신경정신과 원장의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정신세계사)는 각계의 다양한 반응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해 '환자의 체질이 환상이

카레스크식 방법과 비슷한 시기를 한 시대로 묶는 동시 구성법 등을 적절히 활용했다. 지난 91년 저명한 삶 속에서 자신의 장기를 뫄뫄 기증하는 한 노인의 존엄한 생을 그리며 '죽음과의 화해'를 시도한 단편 <아버지의 트랙>으로 등단(월간 문학예술)한 그는 현재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노니는 <걷기와 개> 등 장·단편을 쓰고 있다. "이 소설로 인해 외래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본류를 알고 고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인간 본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해 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재>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이라는 네 가지 독화살이 있어 병의 원인이 된다. 열반경."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최근 마음의 안정과 각성을 통해 심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심리요법을 다룬 책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선의 정신의학적 효과를 다룬 <선의 정신의학>과 '심(心)의학 사전'을 주제로 한 <건강을 얻는 마음의 지혜>, 최면술을 이용해 전생의 사건을 떠올림으로써 증상을 치료하는 전생요법(past-life therapy)을 주제로 한 <김영우와 함께 하는



"책은 정신의 양식입니다" 제1회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책과 더불어 저작권을 이해하다' 행사가 4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문인 22명이 책과 장미, 저작권관련 소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책과 한 송이 장미꽃을 받고있는 김영우 문체부 장관.

"불교정서는 한민족 숨결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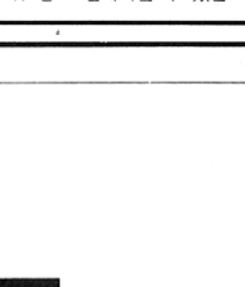
소설 '공무도하가' 펴낸 안문길씨

"우리에게 <서유기> <아라비안 나이트> 등 다른 나라에 비견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 걸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수천년 동안 조상이 남긴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우리의 성정(性情)에 맞게 융화하고 장쾌한 재미 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해초스님의 기행문 <왕오천축국전>을 글의 골격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 공무도하가(公無度可歌)와 그 당시 유행했던 향가 등 노래와 그에 얽힌 설화를 집목시켜 구성한 장편소설 <공무도하가>(자유지성사)의 저자 안문길씨(54·충암고 교사)는 "국민적인 얘기 거리를 위해서는 불교적인 정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향가·설화내용집목 고행의 의미 되새겨

한국불교의 대성(大成)과 나라의 흥을 걸머지고 서역 20만리 만경창과에 몸을 던진 해초(海草)스님과 그를 따르는 소년 화랑 죽지랑과 기파랑, 장차 백제 무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나 해초스님을 위기때마다 구하며 선업을 쌓는 용자(龍子) 서동의 용맹과 기지,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될 선화공주의 지순한 사랑이 소설의 줄거리를 이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짜워 넣고 전개시킬 수 있는 피



현대불교신문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撰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서!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배어있는 쉬운 법화경.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O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1. 문수사리소설 미하변아비리밀경 李來燦·釋能嘉撰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2. 대장부론 李來燦·釋能嘉撰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撰

4. 육묘법문 李來燦·釋能嘉撰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을 이르는 길을 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간

6. 반야경 근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명사주전 불서 100선

원효 '십문화쟁론'

신라시대의 불성(佛聖) 원효(元曉)대사는 230여권의 논주서(論註書)를 지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 저술이 이 <십문화쟁론>이다.

그 원전이 다 전하지 않고 있지만, 경관은 해인사 사간장경전(寺刊藏經殿)에 봉안되어 현전하고 있다. 상권 중 2판(二板) 4장(四張)(9, 10, 15, 16)이 현전하고 있는데 이 경관은 고려 고종 때, 현전 팔만대장경(재조장경)보다 훨씬 이전에 새겨진 경판인 것이다.

이 <십문화쟁론>의 경책은 필자가 1954년, 1968년, 1973년, 1976년에 걸쳐 4회나 대장경을 조사 연구하면서 찍어 보관하고 있다. 9, 10장은 공유(空有)에 대한 화쟁이론이며, 15, 16장은 불성무유(佛性無有)에 대한 화쟁이론이다.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을 정리하는 그 전형적 경(經)과 논(論)은 <열반경>·<법화경>·<기

론체계가 곧 화쟁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화쟁사상을 현대적으로 쉽게 말하면, 총화통일의 사상이요, 평등 평화건설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원리에서 보면 유물론과 유심론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심(心)과 물(物)이 진여법성으로 평등일어다. 오온법(五蘊法)과 육대(六大)가 인연 따라 증생과 극토, 정신계, 물질계에 구현된 것이니 본래 이원(二元)이 아닌데 현

론체계가 곧 화쟁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열반경종요>는 화쟁의 이론을 자세히 제시하였고, 또 <법화경종요>에도 일체 연교(言教)가 일승교(一乘敎)이며, 무량승(無量乘)이다. 모든 경론과 대승소승의(大小乘敎)가 다 법화일승(法華一乘)에 귀일(歸一)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원효는 일승관(一乘觀)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일승관에 입각하여 대소승 삼장(三藏)을 다 일승에 이르게 하는 방편도(方便道)이므로 그 교의에 대하여 시비와 장단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진의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 곳에 시비 쟁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화쟁론의 기점이다. 따라서 화쟁사상의 궁극 목적은 일승불교(一乘佛敎)의 구현에 있다고 본다. 그 일승불교의 이념이 바로 통불교(通佛敎)이다. 이 통불교의 이

대찰학이 이원으로 갈라세워 민주·공산 등 두세개로 양분하는 모순성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쟁사상을 좀더 현대적으로 유추하면, 불심일어(物心一如)·개전불이(個全不二)·만물화쟁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 화쟁사상은 신라 삼국통일의 근본원리요, 오늘날의 국민총화와 남북통일원리라 할 수 있다. 삼국통일에 '봉'은 '1'로 귀일하게 되며, 남북통일의 '봉'도 '1'로 귀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효의 화쟁사상을 오늘날 한국민이 살아가는 기본정신·혁명의 원리로 삼을 수 있다.

불교의 다양한 사상체계를 조화롭게 통일하고 있는 <십문화쟁론>은 등과 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원리를 담은 원효 저술의 백미로 민족의 대승사 원효스님을 한층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책...
▲불교 의식구(홍운식지)=불교의식의 기능과 의미, 구성, 신앙적 구성 등의 식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의식용구와 불교공예, 의식용구의 구성체계, 전통문화적 의미 등의 순으로 다루고 있어 불교의식의 세계를 개관할 수 있다. <대원사 3천5백원>
▲선종이야기(홍희 지)=초조 달마로부터 장로 청로(1097~1152)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선종사에 등장하는 대부분 고승들의 일화와 선문답을 모았다. <동문선 8천원>
▲반야 그리고 아제아제(도암 지)=관자재보살의 해탈 과정과 그 원인, 색과 공의 실상과 그 세계, 보리살타의 근원과 그 상태, 삼세제불의 무상정등정각과 그 위치, 반야 바라밀타의 실상과 그 실체 등을 독창적으로 분석한 신형 입문서다. <의증서 6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인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2	기도	일타	효림
3	능엄경주해	윤허	동국역경원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용	용화
5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원한	우리출판사
6	업보	해범	밀알
7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8	달마에서 경허까지	박영규	정신세계사
9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10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비	민족사

귀일문의: (02)737-0695

불교가 어려워서 찢찢매는 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한 무비스님의 불교 안내서!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글씨도 보기 좋습니다. 이 책은 무비스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딱딱한 교리도 놀랄만치 쉽게 설명합니다.

근래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불교책이 모두 어려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찢찢매다고 합니다.

우리시대 불교의 석학인 무비(無比)스님이 펴낸 <불교공부>는 불교방송에서 강인한 내용으로 우리같은 초심자나 신도들에게는 물론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에게도 더없이 친절하고 반가운 안내자입니다.

또해니의 역작 무비(無比)스님 원역 한글 화엄경 전 12권/값 160,000원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팩스 739-7565

*이 책은 불교방송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보급시 주문은 할인해 드립니다.